

사설

다시 첫단추 끼우듯

슬퍼하거나 개탄하지 않는다.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 대중들은 자간의 사태를 시린 가을 연못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흥분하면 평정을 놓치고 해결의 전망을 흐리게 한다.

중정은 이판(理判)이고, 원정은 사판(事判)이다. 이판은 구도와 수행을 구경으로 하고 있고, 사판은 행정과 사무를 목표로 한다. 이판은 그 이념적 성취로 승상받지만, 사판은 그 효율적 지원으로 평가받는다. 불교의 번성은 이 두 축이 상호존중 하에 화합하고 협력할 때 기약된다. 둘 사이에 틈이 지고 불신이 깊어지면 범용은 희미해지고 어둠은 짙어진다.

대동(大同)이 흔들리면 소강(小康)이라도 기해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밟으며 합의를 모색하는 구차한 방법이 도입된다. 중원과 중법의 권위가 흔들리면 세속의 법률과 대중의 상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작금 종단의 사태는 이 마지막 줄조차 지키지 않았다. 3선이 이슈가 되었을 때 현 원장이 적단(赤團)의 초발심(初發心)으로 공성신퇴(功成身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주어야 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산천초목이 일어나 합창을 불렀을 것을, 그렇지만 그것은 희망사이다. 자격이 있다면 출마를 말할 수는 없다. 말리려면 그 적격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관장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애매한 태도로 검증은 미루고, 다른 편에서는 사퇴만을 외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적 대치의 경쟁선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그날, 그 만고에 치욕스럽고 천추에 한을 남길 조계사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는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행태이다. 원장의 직무에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특정한 사안의 결정과 집행에 사적 의도가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특정한 사업이 종단과 대중의 여망에 부응했는지를 실사적으로 점검했어야 한다. 총무원측에도 잘못은 있다. 접수하겠다고 나서면 즉기로 사수할 것이 아니라 순순히 덮고 자리를 비워주어야 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심판은 사부대중이 한다. 각목든 몇 사람에게 의해 2천년의 전통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불교가 한심하지는 않다. 그런 다음 대중의 공감에 호소하며 차분히 합리적 대책을 모색했어야 했다.

결국 월주스님이 후보를 사퇴했다.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사태의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다음 집행부는 여전히 파행과 알력 속에서 नि천투구하느라, 미래의 불교를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기에 진력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톤이 말했다. 정의란 사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총무원장의 후보사퇴 선언으로 풀린 셈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두번째 단추이다. 정화개혁회의는 점거를 풀고 화합불사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화개혁회의도 중앙종회도 자신의 입장만 주장해서는 안된다. 중앙종회가 또다른 승려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정화개혁회의만이 종단안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제2, 제3의 승려대회가 열려도 할 말을 잃게 된다. 누가 뒀건 종단발전의 소임을 자처한다면 종단은 또 망신을 사게 된다. 이제 더이상 망신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종원 총법에 의해 총무원장 선거에 임해야 한다. 합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대중과 국민의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곳에 권위는 기대할 수 없다. 이 점을 사태와 연루된 모두가 불에 덴 듯 깨달아야 한다.

합의문 유무 공방

지선스님 "정화회의 해산 등 4개항 합의" 정화회의 "어떤 내용도 합의한 적 없다"

19일 월주스님의 후보사퇴 이후 정화개혁회의측과 지선스님측이 '합의문'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합의문 공방은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 후보가 종단혼란 수습과 안정을 위해 조율했다는 4개항에 걸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급부상했다.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가 밝힌 합의문은 △종단안정체제를 만드는 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송월주 총무원장의 3선출마 포기 중응에 노력한다. △송

월주 총무원장이 사퇴할 경우 정화개혁회의는 즉시 해산과 동시에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하고 29대 총무원장 선거를 조속히 실시한다. △정화개혁회의의 해산 후 중립적인 과도적 집행부를 구성한다 등.

이에 대해 정화개혁회의는 즉각 "당면 현안에 대해 상호간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 어떤 것도 합의한 게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어 "정화개혁회의를 중심으로 종단안정을 이룰 수 밖에 없다며 정화개혁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던 지선스님측이 있지도 않은 합의문을 마치 양측이 합의한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것은 그 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화개혁회의는 또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 법안스님으로부터 기자회견 직후 성문스님에게 사과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합의문' 공방의 단초인 월간성문 지선 법안스님의 4자 회동은 18일 저녁 코리아나호텔 한 식당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조계종에 두개의 입법기구

중앙종회, 27일 종원총법 수호 승려대회 정화회의, 상임위 구성 선거법등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27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종원총법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대회장 탄성)를 개최기로 한 반면 정화개혁회의는 비상입법기구인 상임위원회(150명)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조계종 사태가 한 종단에 두개의 입법기관이 양립하는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종회는 20일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하고 27일 승려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종력을 방조하는 공권력을 비난하는 대정부 성명서도 결의했다. 승려대회 개최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까지 정해짐으로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의 갈등 국

면이 가속화 될 것이라 우려를 사고 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중앙종회가 이미 14일 원로회의에서 해산됐음을 주장하며 한시적인 비상입법기구인 정화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법을 비롯해 각종 종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중앙종회는 정화개혁회의의 자체를 적법한 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정화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종원총법을 손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한다.

반면 정화개혁회의측은 종정

교사인 제2정화 불사의 추진에서 종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절차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48명이 참가했던 길상사 종회에 비해 16일 불은사에서 속개된 종회는 52명이 참여했다. 중앙종회는 16일 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을 개정했다. 또 14일 구룡사 원로회의가 원천후퇴라는 결의도 했다.

임연태·김준근 기자 (ytlm@buddhania.com)

수요 인터뷰

국난극복 참회 목포법회 여는 법륜종 이사장 정각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의 회향법회로 28~29일 열릴 제8차 지역화합기원법회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 바쁜 재단법인 법륜종 이사장 정각스님(보현정사 주지)을 만났다.

- 그동안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 열어왔고 이제 회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나라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까 각계

"백장청규정신 실천해야"

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참회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회향을 하면서 일일부작이던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이라는 백장스님의 청규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회향법회의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병폐 중 하나는 지역갈등입니다. 동서간에 지역감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경제난을 당한 우리의 처지를 극복하는 주춧돌은 동서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세 스님의 육화정신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이번 법회가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회향법회이자 민족화합의 입법법회로 역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화합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을텐데요.
△목포 불자들을 비롯해 서울 경기 호서 영남 불자들이 범종단적으로 모두 동참해 여

법한 회향 화합법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지역 지역기관장들도 대거 참여해 지역화합을 기원하는 33타 타종을 시작으로 법회를 열게 됩니다.

- 이번 법회에서 대대적인 사경법회도 열리지요.
△8만4천 부처님 가르침이 모두 거룩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 <호국인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사부대중 4천여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사경에 동참하고 염성된 사경모음집은 불단에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 게다가 철야 3천배 정진도 하지요.
△3천배는 과거생 1천불 현생 1천불 미래생 1천불을 향해 하는 자기 돌아보기 경진입니다. 3천배를 하다보면 욕심 어리석음 성내는 마음으로 뒤엎혀 가리워진 각자의 불성을 더 가깝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위명란 기자 (ryuri@buddhania.com)

"대승보살정신 되살리자"

국난극복 선암사법회 5천여불자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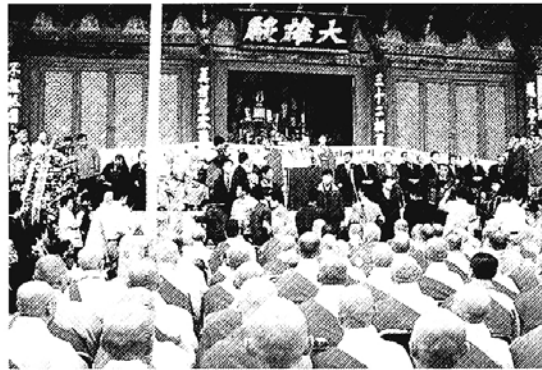
대중회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기원법회가 태고종 총무원 주관으로 승주 선암사에서 5천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하게 봉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주요종단이 주관해 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제7차법회였던 이날 법회는 국난극복을 위한 보살계수계를 통해 불자들이 더 거둔다 국운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원했다.

선암사 대웅전앞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대회를 통해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과 이웃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고 이롭게 하는 대승보살의 실천자가 되기를 서원하는 자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前대통령은 기원사에서 "부처님 가르침따라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대동화합을 기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따뜻해져서 국민화합이 이뤄

지기를 기원했다.

신낙군문화부장관은 이길웅종무실장이 대독한 기원을 통해 "불교계의 구호활동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허경만 전남도지사는 "위기가 곧 기회이며 내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각자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했다. 이어 박상규 중소기업특별대책위원장(국민회의부총재)은 "우리의 급선무는 경제살리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자리는 제2 건국의 실현을 위해 바탕이 되는 큰 힘이라고 말했다.

위명란·김원우 기자



△태고종 주관으로 선암사에서 열린 제7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현대만평

사태수습을 위해...

종단 정화불사와 학교발전을 위한

법회 宗 救 校 法 會 行

● 일 시 : 불기 2542년('98)11월 25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개 회 특 적 ·

종정교시에 의한 불기2542년(98) 11월 11일 승려대회 이후 계속된 분규로 종단의 앞날은 요원하지만 하며, 원로스님과 교계 종진 그리고 대중이 각각 파벌화 되어 서로가 반목 고립되어 불교와 종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날로 따갑기만 합니다.

종단과 승려의 존재 목적이 의심받고 있으며,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여 재기불능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앙승가대학교 구성원들은 「종전동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종단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발원하며」 본 구종 구교법회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 주 최 : 중앙승가대학교

· 주 관 : 총학생회, 총동문회

· 증 명 : 석주근스님

· 대 회 장 : 효종스님

· 집행위원장 : 법매스님, 청화스님

· 집행부위원장 : 지성스님, 강하스님

· 집행위원(실행위원) : 동문회원, 학생회 각 부장, 차장

- 총 무 : 적문스님, 보원스님
- 흥 보 : 삼각스님, 수산스님
- 재 무 : 종식스님, 덕영스님
- 안 내 : 법광스님, 종석스님, 학생회 차장

· 대 변 인 : 적문스님 (문의전화: 922-7881)